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서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 남편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존수로는 1촌도 안되며 피가 섞인 것도 없는데 없으면 허전한 상대라고나 할까?

● 아래는 인터넷에서 퍼온 글로, 결혼하면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증의 편린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소개한다.

결혼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겪으면서 미운 모습 싫은 모습 귀찮은 마음 등등 다 생겼지만...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혼자이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 있어 참 좋습니다.

많은 세월을 같이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신혼 때와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의 사랑.
글쎄요?

사랑보다는 정이라고 할까?
쇼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넘 예뻐 그냥 뽀뽀도 해주고 싶고요,
출근 안시키고 하루 종일 마냥 같이 있고도 싶고요.

그런데 이런 맘 생기기 바로 전까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웬지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사과 먹는 모습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요. 콧!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지나니까 정말 좋아요.
지금도 젊지만 과거 더 젊었던 시절보다 훨씬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한국 기혼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지금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60%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20대에는 8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65.8%, 40대는 55.1%, 50대는 45.8%로 점차 감소하였다. 신혼의 불갈았던 사랑의 계절이 가고 어느덧 애들과 더불어 정신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는 일마다 탐탁치 않고 어느 때는 사랑이 식은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로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덧 다시 미우나 고우나 나의 남편이며 다시 자신 속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 있는 것을 발견한다.

사실 새싹이 돋게 하려면 보이지 않게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신세대들이 사랑을 나누면서 만난 지 한 달 기념, 백일 기념하면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된다.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식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부간에 이틀처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잘 챙기는 것이 화목에 좋다. 사실 부부간에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과거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결혼기념일이 5가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이혼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톡톡히 신경을 쓰라고 5년마다 생겨났다. 결혼 1년째부터 지혼식(紙婚式)이라고 하여 기념하기 시작한다. 결혼 후 5년째가 되면 나무[木], 결혼 후 10년째를 주석(朱錫), 15년째가 동(銅) 혹은 수정, 20년째를 도기(陶器)로 정했고, 25년째가 은(銀), 30년째에 상아, 40년째에 모직, 45년째에 명주, 50년째가 금(金), 60년째 혹은 75년째가 다이아몬드 결혼기념일이다.

사실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여 부담을 가지면 곤란하다. 지혼식에는 종이를 사용한 그림이나 서적 등을 선물하고 은혼식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은제품을 선물하며, 아내도 남편에게 적당한 선물을 하며 친지들은 꽃을 선물한다.

두 번째는 누군가 인내를 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편들이 양보를 부인에게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얼마전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결혼생활 부부가 기록에 올라갔다. 1925년에 결혼한 퍼시 애로스미스(105)와 부인 플로렌스(100) 부부가 결혼 8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결혼해서 무려 80년을 함께 산 것이다. 이혼이 결혼만큼이나 흔히 일어나는 요즘에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 최장수 결혼생활 기록 보유자인 이들 영국 부부에게 비결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었다.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남편들은 “딱 두 마디만 하라”면서 그 두 마디는 바로 “알았어, 여보(Yes, dear)”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들 부부에서 보듯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끊임 없이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에 성에 대한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잠자리에 갈등도 서로 대화를 하고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실행에 옮긴다면 행복한 부부생활이 될 것이다. 남편은 영원한 동반자이다. ㉞